

늦은 가을, 그리움이 깊어지는 계절

Late autumn, a season of deepening nostalgia

글. 정이숙 Jeong, Yisuk | 카피라이터 | (주)프랜티브 이사

가을이 깊다.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 때는 지천이 단풍 든 은행잎 천지였는데, 지은 지 겨우 5년차를 맞은 곳으로 이사하고 보니 단풍은 지인들의 SNS 담벼락을 통해서나 구경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도 몸은 가을이 무르익어 겨울을 부르는 계절을 느끼고 있다. 저녁 여섯 시면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거리를 찬바람 맞으며 걸으면 옷깃을 저절로 여미게 된다. 아직 난방을 하지 않은 집 책상앞에 앉으면 약간 쌀쌀함이 느껴진다. 몸에 와 닿은 쌀쌀함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 쓸쓸함이 된다. 왈각, 갑자기, 덜컥, 몽클하는 감정들이 아랫배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와 아우성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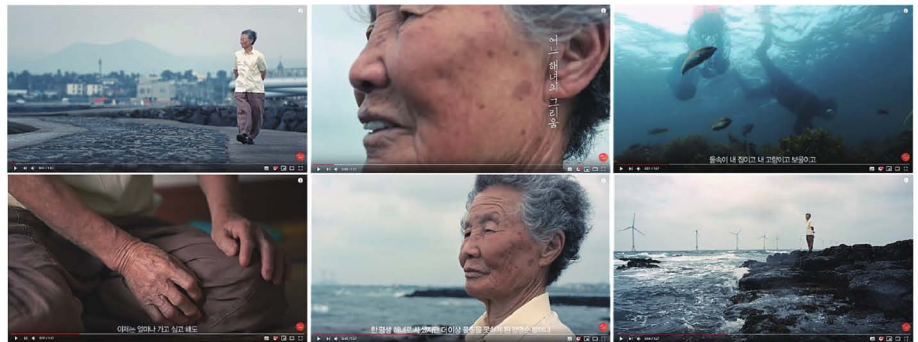
하루가 지나고, 그 하루만큼 가을이 더 깊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창문을 두드린다. 비 맞은 은행잎은 우수수 떨어져 보도블록을 덮는다. 폭신폭신했던 젖은 은행잎은 밝히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늦은 가을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다. 사뿐사뿐 대신 터덜터덜 혹은 타박타박이다. 지나온 한 해가 돌아보면 아득하고, 해놓은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에 마음이 무겁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지나가버린 것들이 그립다. 아무리 뒤돌아 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안타깝다.

가을이면 유독 명치끝을 쿡 찌르는 그리움...

그리움도, 아니 그리움은 무엇보다 좋은 광고의 소재가 된다.

열 다섯에 물질을 시작해 한 평생 해녀로 살아온 할머니가 있다. 제주에 사는 양영순 할머니가 그 분이다. 그녀의 그리움은 바닷속을 향한다. 눈만 뜨면 달려가 내 집처럼 자유롭게 살살이 누비던 바닷속, 평생 양식이 되고 옷이 되고 땀감이 되었던 바닷속의 보물들. 그런데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할머니는 바닷속의 보물들이 보고 싶어서 틈만 나면 나와 멍하니 바다를 바라 본다. 아무리 바라다 봐도 바다는 제 속을 보여주지 않고 철썩철썩 파도만 바람에 부서진다. 광고 영상의 도입부는 바다를 쳐다보는 양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거친 손을 보여주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SK텔레콤_TVCM_어느 해녀의 그리움 편_2017_스토리보드 ①

어쩌면 물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은 양영순 해녀에게 바닷속은 고향이다. 그녀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21세기의 첨단 기술은 그녀에게 꿈에서도 가보기 힘들던 바닷속을 선물한다. 한 통신회사는 그녀가 늘 물질하던 제주도 신창 앞바다의 바닷속을 4K고화질 영상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양영순 할머니는 특수 제작된 차에 앉아서 차 안을 꽉 채우는 바닷속 영상을 만난다. 비록 바닷물에 젖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창 밖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젊은 해녀가 물질을 하고 해초가 살랑거린다. 양 할머니는 돌을 들춰서 문어라도 잡으려는 듯 별떡 일어나 차 창으로 손을 뻗는다, 환성을 지른다, 화면을 만져보다 울컥 눈시울을 붉힌다.



SK텔레콤_TVCM_어느 해녀의 그리움 편_2017_스토리보드 ②

- 자막) 어느 해녀의 그리움
- 양영순) 15세부터 물질을 배웠지.
물속이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보물이고
이제는 얼마나 가고 싶고 뭐해도
가지를 못해서…
나이가 많아 숨이 차서 안되지.
- NA) 한평생 해녀로 사셨지만 더 이상 물질을 못하게 된 양영순 할머니.
이제 할머니에게 바닷속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잃어버린 고향이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의 5G는 양영순 할머니에게
잃어버린 고향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 자막) 할머니가 물질하시던 신창 바닷속을
4K 고화질 영상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SK텔레콤의 5G 기술
- 양영순) 생전에 여 이런 걸 봐져.
꿈 속에서도 못 볼 꺼.

이 바다가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NA) 고향을 떠난 적 없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양영순 해녀의 첫 5G는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자막) 당신의 첫 5G는 무엇이 될까요?
 Welcome to 5G KOREA

SK텔레콤_TVCM_어느 해녀의 그리움 편_2017_카피

5세대 이동통신(5G Networks)은 다운로드 속도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LTE보다 280배나 빨라서 1GB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어도 5G 인터넷 세상이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광고를 보면 뭔가 따스하고 행복한 일을 만들어 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SK텔레콤의 5G 광고가 물길 속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한 광고라면, 까맣게 몰랐던 사람의 속을 소재로 만들어진 광고도 있다.

그는 아들이다. 대개의 아들이 그러하듯 아버지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다. 명절 때나 만나고 가끔 전화를 하지만 할 말은 별로 없다. 잘 지내지? 네. 별일 없으시죠? 응. 짧은 통화가 대화의 전부였던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는 눈도 채 뜨지 못하는 아들의 아기를 안고 눈물을 보인다. 자장가를 부른다. 내 아버지가 자장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된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속이 궁금하다. 역시 SK텔레콤이 만든 ‘사람_다시보기’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머리 희끗한 남자의 뒷모습만 나온다. 아릅드리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늘어선 길을 천천히 걷는 속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 손주를 안고 어르며 재우는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뒷모습. 그 풍경 위로 아들의 나레이션이 잔잔하게 흐른다.



SK텔레콤_TVCM_ 사람 다시보기/아버지 편_2008_스토리보드

자막) 사람_다시보기 I
 아들 O.V) 내가 아홉 살이 되던 해부터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걸었다.
 그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나는 그가 궁금하지 않았다.
 오늘 그가 내 아기를 처음 안는다.
 눈물을 보이고 자장가를 부른다.
 나는 과연 당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자막)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가슴 속을 만나십시오.
 MBC캠페인
 이 캠페인은 SK텔레콤이 함께 합니다.

SK텔레콤_TVCM_ 사람 다시보기/아버지 편_2008_카피

더 늦기 전에, 더 잊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11월은 더 늦기 전에 해야할 일들로 마음이 바쁘다. 때이른 송년회를 알리는 문자가 도착한다. 나는 아직 올해를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서 떠나 보내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아니라 몽땅 잊어 버리자는 '망년회'가 범람하던 시절을 지나와서 그런지 나는 해와 함께 잊고 싶은 일들도 줄지어 떠오른다.

종일 모니터 앞에서 크게 중요할 것도 없는 일을 분주하게 하다가 퇴근한 뒤, 낙엽 뒹구는 거리를 걸으면 생각한다. 남은 두 달, 남은 내 시간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지금의 나는 과연 과거의 내가 되고 싶던 그 사람인가? 그리운 것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세월이 흐르면 지금 이 순간도 그리운 것이 될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모든 그리운 것들은 행복했기 때문에,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어서, 지나가 버려서 그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워하고 후회해도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10년쯤 지나면 그리워질 오늘의 나에게 미래의 내가 되어 귓속말을 한다. 실컷 그리워하라고 대신 어제에 대해서도 오늘에 대해서도 후회는 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거니까... 가을이 깊다, 야위어 가는 가을 따라서 그리움도 깊다.

<https://www.youtube.com/watch?v=GWc91KekX60>
(SK텔레콤_TVCM_어느 해녀의 그리움 편_2017_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nfMaaCak60>
(SK텔레콤_TVCM_사람 다시보기/아버지 편_2008_유튜브링크)